

초등학교 수학 숙제 '쌀알 1억 개 세어 오기'



중국 한 초등학교의 수학 숙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7일, 중국 상하이시에 따르면 광둥성 포산에서 5학년 학생을 가르치는 한 선생님은 최근 아이들에게 이틀 동안 쌀알 '1억 개'를 세어오라는 숙제를 냈다. 그리고 제때 해오지 않으면 세어 올 쌀알의 수를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실을 알려지자 부모들은 대부분 어처구니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학부모는 "1초에 3알 씩 세도 1억 개를 세려면 1년이나 걸린다. 이건 숙제가 아니라 고문" 이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몇몇 학부모들은 "학생들이 정해진 틀을 벗어나 생각하길 바라며 이런 평범하지 않은 숙제를 냈을 수도 있다."며 숙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숙제를 두고 논란이 커지자 결국 선생님이 나서 직접 입장을 밝혔다.

선생님 수 씨는 "이 숙제를 낸 것은 아이들이 어떻게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할지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고, 1억이라는 숫자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걸 돕기 위해 낸 것" 이라며 말했다.

그는 "쌀알을 하나씩 세기 보다 처음에는 100개 단위로 세고, 이후에 1억이 될 때까지 10이나 100을 곱해가며 세길 바랐다."며 "이미 학생 40명 중에서 10명이 훌륭하게 과제를 해냈다"고 덧붙였다.

손톱 물어뜯는 습관 때문에

한 여대생이 손톱을 물어뜯는 습관 때문에 결국 엄지손가락을 절단했다.

6일 영국일간 메트로에 따르면, 호주 퀸즐랜드주 브리즈번에 사는 코트니 휘턴(20)은 손톱을 물어뜯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 휘턴의 이런 습관은 2014년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면서부터 시작했다. 날이 갈수록 손가락 물어뜯는 버릇은 심해져 결국 손톱 밑바닥이 전부 떨어져 나가고, 엄지 손가락은 검게 변했다. 휘턴은 두려웠지만 왕따 당한 사실이 부끄러워 4년 동안 가족과 친구들에게 그런 사실을 숨겨왔다.

결국 지난 7월 병원을 찾은 휘턴은 자신의 습관이 오랫동안 엄지 손톱과 손가락에 상처를 남겼고 결국 말단흑자흑색종이란 희귀 피부암으로 발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휘턴은 "손톱을 물어뜯는 버릇이 암의 원인이었음을 알았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상상도 못했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며 후회의 눈물을 흘렸다.

휘턴은 암을 치료하기 위해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완치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손가락을 절단해야만 했



▲ 코트니 휘턴은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 엄지손가락을 절단했지만 향후 피부암이 재발병하게 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다. 하지만 완치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

수술을 위해 학업마저 연기한 휘턴은 "그때로 돌아간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스스로에게 해를 입히지 않고 버텨볼 것" 이라면서 "많은 아이들의 손톱 묻는 버릇이 나처럼 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좋지 않은 습관은 빨리 고치기를 당부하고 싶다."고 말했다.

어리버리한 강도 코털용 가위 들고 "돈 내놔!"

코털용 가위로 편의점을 털려던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달 31일, 일본 도쿄 신주쿠의 한 편의점에 강도가 들이닥쳤다. 이 남성은 길이가 약 3cm 정도 되는 코털용 가위를 들고 "꼼짝하지 말고 돈을 내놔라!" 라고 점원을 위협했다.

위협에도 불구하고 점원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강도는 오히려 당황해 재빨리 도망쳤다. 강도가 편의점을 빠져 나가자 이후 점원은 경찰에 신고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달아났던 남성은 신고를 받고 순찰 중이던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강도미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남성은 "돈이 필요해서 편의점 점원을 협박했다."며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명칭하다.", "어이가 없다.", "그래도 칼날이 있는 무기는 조심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www.myevergreenschool.com

"에버그린 프리스쿨 임니다"

GOD IS LOVE 1JOHN4:19

evergreen

PRESCHOOL • KINDERGARTEN

SINCE 2012

"아이들이 VISION을 꿈꾸는 학교"

5882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1

714.670.9687